

헨리 8세와 잉글랜드 휴머니즘

허구생*

- I. 헨리 8세는 누구인가?
- II. 르네상스 휴머니즘
- III. 16세기 잉글랜드의 휴머니즘과 사회개혁
- IV. 헨리 8세는 르네상스 군주인가?

■ 국문요약

잉글랜드의 헨리 8세는 잉글랜드 역사상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영향 아래 성장하고 나라를 통치한 첫 번째 군주이다. 그는 당대 일급의 휴머니스트 교사들로부터 라틴어, 수사학, 역사학, 그리고 음악을 배웠으며, 불어, 이탈리아어 등 여러 외국어를 익혔다. 그는 1509년 19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그에게 행운이었던 것은 그의 주변에 휴머니스트 지식인들이 여럿이 있었으며, 그들은 새로운 학문에서 얻은 지혜를 언제든지 왕에게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잉글랜드의 휴머니스트들은 ‘위로부터의 사회 개혁’을 생각하고 있었고, 새 왕을 자신들의 희망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헨리 8세는 휴머니즘 사상을 폭넓게 수용한 르네상스 군주였을까? 대답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는 외교정책의 최종 결정자로서 전쟁과 평화정책을 번갈아 펼쳤다. 휴머니스트들은 유럽을 하나의 덕스러운 기독교 공동체로 가꾸어 갈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전쟁은 그들의 대안이 아니

* 前 서강대 국제문화교육원장, 역사학 박사

었다. 특히 그가 통치 말기에 일으킨 전쟁은 커다란 명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아까운 국가의 자원을 무의미하게 낭비한 사건으로 남았을 뿐이다.

후사를 얻어 국가의 장래를 탄탄히 하고자 하는 그의 욕심은 첫 번째 왕비 아라곤의 캐서린과 이혼하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 국왕의 이혼 문제는 결국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으로 귀결되었다. 이는 종교개혁 아닌 교회의 개혁을 통해서 덕스러운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대부분의 휴머니스트들을 실망시켰고, 왕의 곁을 떠나게 만들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생각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영향을 잉글랜드 역사에 미쳤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에는 덕성의 함양을 중시했던 제1세대 휴머니스트들과 달리 실용적인 사고를 가진 다음 세대 휴머니스트 그룹이 있었다. 그들은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국왕의 이혼, 수도원 해체, 중도적인 교리 수용 등 종교개혁의 모든 절차를 의회 입법을 통해서 처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의회의 소집 주기가 단축되고 회기가 연장되는 등 규칙성이 강화되었다. 또한 의회가 다루는 의제의 정치적, 사회적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1536년의 빈민법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최종적으로 반포된 법 그 자체보다는 최초 의회에 상정되었던 법안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법안은, 예컨대, 노동능력이 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른바 ‘비자발적 실업 빈민’을 위하여 국가가 공공고용 사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누진적 소득세를 통해 빈민구제 재원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근대적 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선도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잉글랜드 의회는 국가의 가장 중추적인 기관으로 성장하였으며, ‘의회 속의 국왕’이라는 최고주권의 개념이 생겨났다. 그리고 1539년 처음 출판된 영어판 성경은 잉글랜드 르네상스 문화를 꽃피우는 자양분이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성취를 가져온 장본인은 국왕이 아니라 토머스 울지와 토머스 크롬웰을 비롯한 그의 신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중용한 사람이 헨리 8세이며, 그들의 정책이 수용된 것은 헨리의 의지와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절반의 공적은 헨리의 몫

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다.

주제어 ● 헨리 8세, 르네상스 휴머니즘, 인문교육, 에라스무스, 토머스 모어, 종교개혁, 의회 입법, 전쟁과 평화, 영어 성경

I. 헨리 8세는 누구인가?

헨리 8세는 1491년 6월 28일, 헨리 7세와 에드워드 4세의 딸인 요크의 엘리자베스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유아기를 넘어 생존한 경우로 따진다면, 위로는 형인 아서와 누나인 마거릿이 있었고, 아래로는 여동생인 메리가 있었다. 장자 상속의 전통이 확고해진 시대였기에 그가 왕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부왕인 헨리 7세는 그를 성직에 입문시켜 잉글랜드 교회의 실질적 지배자인 캔터베리 대주교에 앉힐 생각이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다.(Bowle, 1990, 26)

자연스런 일이지만, 왕의 첫째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던 헨리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나이 세 살에 요크 공작이 되고, 네 살 때인 1495년에는 가터 기사단(the Order of Garter)의 일원이 되는 등의 공식적인 기록들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그가 왕실의 자제로서 일급의 교육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 부왕인 헨리 7세의 주위에는 이미 르네상스 신학문인 휴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이 상당수 있었으며, 그는 자녀들의 교육을 기꺼이 그들에게 맡겼다. 또한 헨리 7세의 모친인 레이디 마거릿 보퍼트는 캠브리지 대학의 크라이스트 칼리지를 설립하는 등 유명한 학문의 후원자였는데, 그녀가 손자들의 교육을 직접 감독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Scarbrick, 1968, 20) 왕세자인 아서의 경우 큰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고전학 과정을 수학했으며 그의 교사들 중에는 휴머니스트 학자이며 계관시인이었던 존 스켈턴(John Skelton)과 헨리 7세의 프랑스인 비서이며 역사가

였던 앙드레 베르나르(André Bernard)가 포함되어 있었다. 아서는 라틴어 문법과 호메로스, 베르길리우스, 오비디우스 등의 시문을 익혔다. 또한 키케로에 대해서 폭넓게 공부했으며, 투키디데스, 타키투스, 리비우스 등의 역사책을 읽었다.(Pollard, 1966, 16)

헨리 또한 비슷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499년 잉글랜드 땅을 처음으로 밟았던 에라스무스는 토머스 모어의 안내를 받아 아서를 제외한 다른 헨리 7세의 자녀들 교육 현장을 탐방했는데, 그곳에서 조우한 여덟 살인 헨리 왕자의 품행과 처신에서 감명을 받았다고 술회한 바 있다.(Scarbrick, 1968, 19-20) 헨리의 교육을 맡은 사람들 중에는 스켈턴과 윌리엄 혼(William Hone)이 있었고, 베르나르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켈턴과 혼으로부터는 고전학을 배웠고, 베르나르로부터는 서체를 익혔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랑스어 문법서 저자인 자일스 두베스(Giles D'ewes)로부터 프랑스어와 류트를 배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에라스무스는 그의 제자 마운트조이 경을 통해 어린 헨리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교사는 스켈턴이었다. 1490년대 중반에서 1502년까지 헨리의 교육을 맡았던 그는 1501년 「왕자의 거울Speculum Principis」이라는 지침서를 증정했다. 거기에는 신하에게 맡기지 말고 모든 권력을 직접 장악할 것, 배우자를 직접 선택할 것, 그리고 배우자를 늘 그리고 독특한 방식으로 포상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Scarbrick, 1968, 18-9) 교육의 결과, 그는 고전뿐 아니라 외국어에서도 상당한 실력을 보였다. 그는 라틴어에 능통했으며, 프랑스어를 익숙하게 말할 수 있었고,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수학에 대해서도 상당한 흥미를 표현하곤 했다고 한다.(Pollard, 1966, 16-20)

또 하나, 그의 교육과 관련하여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과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음악이었다. 음악을 익힌 덕분에 그는 개인적으로 악단을 고용하여 여행 중에 동반하는 동시대 유일한 왕이 될 수 있었으며, 직접 작곡한 곡을 연주하게 하고 자신이 직접 주연으로 노래를 부르는 왕이 될 수 있었다. 그는 류트, 오르간, 하프시코드 등의 악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았고, 방

대한 악기들을 수집했다. 작곡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헨리 8세의 악곡 집으로 알려진 수기판본은 1518년 무렵에 간행된 것인데 약 20곡의 노래 등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곡 중에는 유명한 ‘좋은 벗들과의 놀이(Pastyme and Good Company)’가 있다. 또한 여기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작곡 중에는 ‘오 모든 것의 창조주인 주여(O lorde, the Maker of all thyng)’라는 꽤 알려진 작품이 있고, 이는 지금까지도 널리 연주되고 있다.(Pollard, 1966, 19)

1502년 4월, 형이자 왕세자인 아서가 병으로 사망했다. 다음해 2월 18일에는 죽은 형을 이어 헨리가 왕세자(Prince of Wales)에 임명되었다. 아서는 죽기 전 부왕인 헨리 7세의 뜻에 따라 카스티야의 이사벨라 1세와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¹⁾의 딸인 아라곤의 캐서린과 결혼식을 올린 바 있었다. 아서의 이른 죽음으로 인해 에스파냐와의 혼인동맹이 무산되는 것을 무척이나 아까워하던 헨리 7세는 고심 끝에 둘째 헨리를 캐서린과 결혼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서와 캐서린이 결혼식은 올렸지만, 둘 사이에 혼인의 완결(consummation), 즉 잠자리가 이루어지 않았음을 이유로 교황 율리오 3세로부터 두 사람의 결혼이 무효라는 특인장을 받아냈다. 그로써 헨리와 캐서린의 약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둘의 결혼은 헨리 7세의 임종 후인 1509년 6월 11일에서야 이루어졌고 두 사람의 대관식은 6월 24일 거행되었다.

1509년 18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헨리는 스포츠와 무예에 탐닉했으며, 명예에 대한 그의 열망은 자연스럽게 전쟁으로 연결되었다. 16세기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명예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굴의 노력과 고통을 통하여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특히 16세기는 기사도의 덕목이 부활한 시기였으며, 군주의 덕성은 용기, 불굴의 정신 등 전장에서의 행위 덕목들과 동의어처럼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왕의 왕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공적무대는 전장이었다. 헨리는 1513년 첫 대륙 원정에 나섰다. 폴리도르 버질은 저서 『잉글랜드史Anglica Historia』에서 이 원정의 으뜸가는 동기를 명예의 추구라고 단정 지었다. 전쟁을 통한 그의 명예 추구는

1) 이들의 결합에 따라 통합 에스파냐 왕국이 성립되었다.

1520년에 들어서도 의욕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로 인한 전비(戰費) 지출은 재정 압박으로 돌아올 정도였다. 이는 재정 지출에 지극히 인색했던 헨리 7세가 근근이 축적해 놓았던 금고가 바닥난 것을 의미했다.

어쨌건, 처음에 왕과 왕비는 사이가 좋았다. 헨리의 첫 전쟁도 장인과 장모, 즉 페르난도와 이사벨라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애뜻한 온기는 1511년 그들의 아들 헨리가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죽은 이후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1516년 태어난 아이는 딸인 메리였다. 다산 능력이 있다고 전해졌던 캐서린에 대한 실망이 몰려오면서, 과연 그녀가 자신에게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아줄 수 있을 것인지, 깊은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1520년, 프랑스 지역에 남은 유일한 잉글랜드의 영토 칼레에서 벌어진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의 대규모 평화축제 ‘금란의 들판(the Field of Cloth of Gold)’에서 잉글랜드의 역사를 바꿔놓을 운명적인 한 여성과 조우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앤 불린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결혼을 위해서 1525년 열아홉 살의 나이로 귀국하여 튜더 궁정에 발을 디디는 순간, 상황은 급진전하기 시작했다. 외교관인 부친 토머스 불린을 따라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궁정과 프랑스 왕가 발루아의 궁정에서 선진 르네상스 문물과 ‘궁정식 사랑(courtly love)’이라는 연극 형식의 사랑놀이 기교를 듬뿍 익힌 그녀는 화려하지만 위험천만한 튜더 궁정에서 톡톡 튀는 르네상스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를 쫓는 매력적인 사냥꾼들의 경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둔 자는 헨리 8세였다.(샤마, 2022, 365-374)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그저 그런 사랑 놀음에 그치지 않았다. 앤은 결혼을 요구했고, 헨리는 그런 그녀에게 자신의 유일한 정부(情婦), 즉 후궁의 지위를 약속했으나, 그것은 자존심 강한 앤에게 모멸감과 치욕감을 안길 뿐이었다. 헨리는 뉘우치며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쓰며 용서를 구했다.

앞으로는 내 마음이 오롯이 당신에게만 바쳐질 것을 약속하며, 만약 신께서 용납하신다면 몸까지도 그리 될 것을 몹시도 바라고 있소. 나는 신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면서…매일매일 신께 간청을 드린다고.

헨리는 앤이 자신이 그토록 바라는 아들을 낳아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헨리는 형제의 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레위기』의 금지조항을 들어서 캐서린과의 결혼이 원천무효라는 교황청의 판단을 받아낼 생각이었다. 그러나 캐서린의 조카인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로마를 점령하고 교황 클레멘스 5세를 사실상의 포로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왕을 대신해 국정을 맡아왔으며 왕의 이혼 문제와 관련하여 총대를 둘러땀던 추기경 토머스 울지 한사람에게 실패의 책임을 묻는다고 끝날 일은 아니었다. 왕의 이혼 문제로 시작된 그 사건의 결말은 로마로부터 독립된 잉글랜드 국교회의 설립, 즉 종교개혁이었다.(사마, 2022, 374-384) 1533년 잉글랜드는 ‘제국’ 즉 어떠한 외부의 세력도 잉글랜드의 주권을 훼손할 수 없음이 선언되었으며, ‘의회 속의 국왕(king-in-parliament)’이 잉글랜드의 최고주권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허구생, 2015, 344-7) 국왕은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을 겸하게 되었다.

헨리 개인적으로 볼 때, 종교개혁이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은 자유로운 이혼과 결혼의 길만이 아니었다. 잉글랜드의 종교개혁 정국에서 가장 큰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 토머스 크롬웰은 1535년과 1536년에 걸쳐 전국의 수도원들을 상대로 하는 감찰(visitation)을 전광석화처럼 단행하고 곧 이어 1536년에서 1541년 사이 부패와 방종, 그리고 미신적 신앙을 이유로 그들을 모두 해체하는 절차를 감행했다. 이는 엄청난 재정 수입을 국왕 정부에 안겨주었다. 당시 수도원이 200만 에이커, 다시 말하면, 잉글랜드 전체 토지의 16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Bernard, 2011, 390-409)

튼튼한 재정을 믿고 왕은 이제 전쟁을 다시 시작했다. 1544년 7월, 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를 침공했다. 9월에는 10만발 가까운 포탄을 작렬시킨 후에 불로뉴를 함락했다. 그리고 1546년 6월 양국은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영국이 불로뉴를 8년간 보유하되, 1554년 프랑스가 200만 크라운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프랑스에 반환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그 조그만 승리

의 대가는 참으로 컸다. 1538년부터 1547년까지 10년간 사용한 전비는 총 200만 파운드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헨리의 1년 수입이 수도원 해체 이후에도 약 15만 파운드 정도에 머물렀던 것을 감안하면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었다. 이미 옛 수도원 토지의 상당부분 토지는 젠트리 계층에게 매각되었고, 이제 헨리 정부는 함량 미달 화폐를 발행(debasement)하거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해외에서 돈을 빌려 재정을 충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허구생, 2015, 23-6)

1547년 1월 28일, 헨리는 자신의 주력 전함 메리 로즈호가 프랑스와 파멸적 일전을 벌이다가 포츠머스 항구에 침몰한 것과 때를 같이 하여 마지막이자 여섯 번째 왕비인 캐서린 파의 가슴에 안겨 죽음을 맞았다.

그는 어떤 군주였을까? 여섯 명의 왕비와 결혼한, 테스토스테론이 넘쳐나는 호색군주이며, 앤 불린을 포함, 그 중의 둘을 대역죄로 참수하고, 또 다른 둘을 무자비하게 내친 냉혈한이었을까? 토머스 모어와 토머스 크롬웰을 비롯하여 한때는 절친한 친구이자 한때는 충성스런 신하였던 자들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 자의적으로 죽음으로 내몬 전제군주였을까? 자신의 명예를 위해 나라의 자원을 아낌없이 낭비한 전쟁광이었을까?

아니면, 음악과 예술, 그리고 학문을 사랑한 군주? 종교개혁을 통해 나라의 독립을 완성시키고, 의회를 명실 공히 국가의 중추적 기관으로 성장시킨 국민군주? 의회입법을 통해 국민의 민생을 챙긴 온정적 군주? 만약 그렇다면, 그의 그런 정책들은 ‘르네상스 휴머니즘’이라는 당대 정책사상의 결과였을까?

II. 르네상스 휴머니즘

르네상스 휴머니즘은 고전 세계와 고전 학문에 대한 관심을 ‘재탄생(rebirth)’시킨 지적 운동으로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 지속되었다. 중세시대에도 고전 학문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었으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신학을 뒷받침하

는 부수적이고 선별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 고전에 대한 관심은 종교나 신학이 아닌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이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1304-1374)가 고전 문헌을 수집하며 시작된 휴머니즘은 처음에는 이탈리아 반도에 확산되고, 뒤이어 알프스를 넘어 유럽 전체로 퍼지게 되었다. 고전 문학과 철학의 ‘재탄생’은 유럽인들의 마음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으나, 처음에는 사람들의 정치적 사회적 태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페트라르카와 그의 휴머니스트 동료들은 고전학문을 연구하고 저술 활동에 몰두했지만, 그들의 생활은 대체로 중세적 청빈의 이상과 스토아 철학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적극적인 사회 참여보다는 개인의 심적 평정 상태를 더 중시했다. 이 때문에 한스 바론은 페트라르카를 가리켜 ‘최초로 신천지를 발견했으나 끝내 거기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모세와 같은 존재’라고 평가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으나 정작 자신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비유한 것이다. 그 이유는 페트라르카가 젊은 시절 인간의 개성과 자아를 존중하고, 명예의 추구를 덕목으로 인정했으며, 칸초니에레를 통해 세속적 사랑을 노래하는 등 근대인의 면모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의 책 『영혼의 갈등 Secretum』에서 엿보이듯이 그가 만년에 이르러서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중세적 덕성으로 회귀했기 때문이다.(김영한, 1989, 24-32, 142-3)

이 점에 착안하여 한스 바론은 이탈리아 휴머니즘 운동을 크게 두 단계로 구분했다. 제1단계는 페트라르카 등에 해당되는 단계이며 ‘문학 및 철학적 운동’이다. 제2단계는 피렌체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으로서 ‘시민적, 정치적 운동’이었다는 것이다. 15세기 피렌체의 휴머니스트들은 고전의 공부가 단순히 교양 있는 문인으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실천을 위한 것임을 설득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바론은 그 이유를 15세기 초 피렌체의 정치적 상황에서 찾고 있다. 그것은 전제적인 밀라노의 비스콘티家の 세력 팽창으로 피렌체가 간직해온 자유와 공화주의의 가치를 송두리째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시민적 자각이 일어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하나의 정치적, 사회적 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바론의 주

장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들이 있으나, 그렇다고 그의 기본적인 주장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휴머니스트들은 고전 학문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15세기 이후 인문 교육은 개인적 덕성뿐 아니라 시민적 덕성을 쌓는 데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는 자신뿐 아니라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잠재적 역량을 깨닫고 계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휴머니스트(humanista, umanista)라는 용어는 15세기 후반부터 사용되었는데, 원래 인문학(humanistas) 강좌의 교수 또는 고전 문학의 교사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그리고 스튜디오 후마니타티스(studia humanitatis)는 로마 시대부터 사용되던 용어로서 후마니타스, 즉 ‘인문학 교육’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피렌체 찬가』로 유명한 레오나르도 브루니(1370-1444)는 이를 가리켜 “인간을 완전하고 빛나게 해주는 최고의 학문”이라고 말했다.(김영한, 1989, 86-8) 휴머니즘이라는 용어는 18세기 또는 19세기의 창안품인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고전 학문이 세련되고 원숙한 교육을 위한 핵심적 커리큘럼으로 부각된 역사적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휴머니스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체계 전반을 이르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어원에 관련된 사실만 보더라도 휴머니즘이 얼마나 교육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휴머니즘은 그리스와 로마라는 고전적 세계가 15세기의 사람들에게 가르칠만한 매우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진 세상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것은 종교 교육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사람들의 개인적, 공적 덕성 함양에 목표를 두었고, 과목에는 라틴어 문법, 수사학, 역사학, 문학 및 시학, 그리고 도덕 철학 등이 포함되었다. 종교 교육과 대비된다 하여, 휴머니즘이 종교나 신학을 배척하거나 상호 모순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고, 가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를 가리지도 않았다. 예컨대, 후일 교황에 오르게 될 교황 피콜로미니는 휴머니스트 시절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문학은 우리의 안내자로서 과거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고, 현재를 정당하게 평가하게 도우며, 미래를 건전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문학이 사라지면 어둠이 대지를 뒤덮는다. 역사의 교훈을 읽지 못하는 군주는 아부와 음모의 희생물로 전락하고

만다.”(브로노프스키, 매즐리슈, 2001, 388-9)

휴머니즘은 15세기 말 알프스를 넘으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를 가리켜 ‘북방 휴머니즘’ 또는 ‘기독교적 휴머니즘(Christian humanism)’이라고 부른다. 후자는 이 운동이 함축하고 있는 기독교와의 긴밀한 연관성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찰스 노어트에 따르면, 그들 북방 휴머니스트들은 자신들의 인문학적 가르침과 고전 언어 및 문학에 대한 학문을 성경과 교부들을 포함한 초기 기독교에 대한 공부와 연결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기독교 공동체를 영적, 제도적으로 개혁하려고 했다는 것이다.(Nauert, 2006, 155-180) 데시테리우스 에라스무스, 토머스 모어, 존 콜레트, 자크 르페브르 데타플 등이 북유럽 휴머니즘 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지식인들이었다. 그들은 인문 교육을 중시하는 한편, 자신들의 학문적 지식을 교회를 개혁하는 데 사용하려고 애썼다. 그들은 또한 교회의 부패와 형식주의를 신랄하게 풍자하면서, 초기 기독교의 이상을 되살리려고 노력했다.

특히 에라스무스는 북방 휴머니즘을 대표하는 학자이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다. 그는 1500년 잉글랜드에 있는 동안 그리스어를 공부하기로 결심했는데 그의 그리스어 성취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불과 5년만인 1505년, 그는 에우리피데스의 『헤카베』와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를 번역했을 정도였다. 그의 그리스어 공부는 1516년 첫 그리스어판 신약성경을 출판함으로써 찬란한 결실을 보았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그의 출세작은 『우신예찬Praise of Folly』이었다.

1509년 헨리 8세가 새로이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르자, 토머스 모어를 비롯한 에라스무스의 잉글랜드 친구들은 그를 자기네 나라로 불렀다. 그가 젊은 새 왕의 치하에서 바람직한 일자리를 얻어 유익한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이리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에라스무스는 이탈리아를 떠나 알프스를 넘어 잉글랜드를 향하는 길에 『우신예찬』을 구상했다. 그리고는 잉글랜드에 도착한 후 모어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1주일 만에 작품을 완성하고, 모어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동음이의적인 익살을 부리면서 모어의 이

름을 넣어 라틴어로 책의 제목(Moriae Encomium)을 지었다. 1511년 출판된 『우신예찬』은 수도원의 폐습과 방종, 그리고 형식적 금욕주의를 신랄하게 풍자, 비판한 작품이다. 이 책은 곧장 유럽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여러 판본으로 출판되며 독자들은 큰 호응을 얻어냈다.

또한 『기독교 기사의 핸드북』은 1503년에 출판된 책인데, 그때는 별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515년 다시 출판되면서 커다란 반응을 일으켰고, 1519년에서 1523년 사이 영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스페인어로 각각 번역, 출판되었다. 이 책이 큰 호응을 받은 것은 외적 의식보다는 개인적인 영적 경험을 강조한 것, 성직자들의 부패를 신랄하게 풍자한 것, 그리고 진정한 신앙은 금욕 등 종교의 외적, 형식적 계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사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이었다.(Nauert, 2006, 176-180)

에라스무스는 1516년 『기독교 군주의 교육 *Institutio principis Christiani*』을 썼다. 토머스 모어가 『유포피아』를 쓴 바로 그해였다. 그 책은 3년 뒤에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카를 5세)가 될 합스부르크가의 왕자 카를을 위해 쓴 것으로서, 그의 교사가 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 군주의 교육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플루타르크 등 위대한 고전 사상가들의 지혜를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그의 철학이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다. 특히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책의 첫 문장에서 “지혜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지해도 군주가 어떻게 해야 선한 통치를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것보다 훌륭한 것은 없다.”(Erasmus, 1997, 1)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이교도인 고전 사상가들의 지혜를 기독교적 전통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 위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곧바로 신께서 솔로몬 왕에게 무엇이건 바라는 대로 다 주겠다고 했을 때, 솔로몬이 신의 백성들을 이끌 지혜를 달라고 했음을 상기시켰다.(Erasmus, 1997, 2)

에라스무스를 비롯한 북방 휴머니스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군주는 예수를 가운데 모신 삶을 살되, 그의 믿음은 외부적 형식보다 내면적 신앙에 바탕을 두어야 했다. 또한 고전의 지혜를 통해 내면적 덕성을 키워 백성의 모범

이 되어야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따라야 할 본이 있었다. 모든 덕성을 최고의 경지에서 완벽하게 갖추었던 사람, 곧 예수의 삶이었다.

III. 16세기 잉글랜드의 휴머니즘과 사회개혁

잉글랜드의 휴머니스트들은 점점 커지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문, 즉 르네상스 휴머니즘에서 얻은 지혜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선배격인 이탈리아 휴머니스트들이 정치적 자유의 보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잉글랜드 휴머니스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각 사회계층 간의 조화와 질서 유지였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Skinner, 1978, 215, 228-231, 235) 그들에게 있어서 선량한 질서의 유지와 덕성의 함양은 독립된 주제가 아니었다. 정연한 질서가 유지되는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덕성 함양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사회 각 계층이 각각의 위치를 지키며 주어진 기능을 발휘해야 조화로운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보다 공평한 사회를 향한 그들의 개혁 이상은 기존의 사회구조를 넘어서지 못했다. 토머스 스타키를 비롯하여 법과 사회제도의 개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실용적 휴머니스트들이 진정한 귀족성은 혈통이 아니라 덕성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기존의 사회질서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전통적인 귀족들이 가장 그럴법한 덕성의 소유자임을 경험론적 입장에서 인정함으로써 기존질서를 옹호하였다.(Skinner, 1978, 237-8)

토머스 엘리엇은 사회질서가 확실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계급과 위치가 있어야 하고, 그것은 개개인의 사리분별 능력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공동체는 높은 덕성과 좋

은 자질을 가진 사람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 역시 기존의 사회질서를 옹호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간의 자연적 불평등론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신은 모든 인간들에게 똑같은 품위와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보다 많이, 누구에게는 보다 적게 주신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 전통적인 엘리트 계급의 덕성 함양에 주안점을 두었고, 특히 장래의 통치자가 될 사람들의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Elyot, 1962, 2-5) 스타키는 이성의 요소가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분배되지 않은 것은 부분적으로 ‘교육’에 기인한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 역시 엘리트 계급의 교육에만 배타적 관심을 둔 점에서 엘리엇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귀족들이 지배 엘리트의 위치를 다시 찾고, 시민적 덕성 안에서 다시금 훈련 받는다면, 그들이야말로 적절한 사회개혁을 주도하면서 사회적 공동선을 함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Mayer, 1989, 8, 138-9)

당대의 휴머니스트 중 가장 진보적인 사람은 리처드 모리슨이었다. 그는 전통적 사회신분에 바탕을 둔 엄격한 사회질서보다는 ‘덕성에 의한 귀족성(nobility by virtue)’을 보다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정부의 관리를 등용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가 얼마나 높은 자질과 지혜, 그리고 덕성을 소유했는가에 두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직과 명예의 배분이 개인의 자질이 아니라 혈통에 따라 정해진다면 그것은 곧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Morison, 1984, 115-6) 그가 ‘덕성에 의한 귀족성’의 개념에 얼마나 천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생각이 당대 휴머니스트들의 주된 흐름은 아니었음은 확실하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토피아』는 매우 다양한 해석을 낳아왔으며 오늘까지도 논쟁의 대상이다. ‘유토피아’에는 귀족이라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고귀한 조상의 혈통을 가진 이유만으로 일하지 않고도 우아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곳에 없다. 통치자(governor)를 포함한 모든 관료들과 성직자들은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유토피아의 주민들은 그 누구도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강제당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건

이성의 명령에 복종하는 본성의 안내를 따를 뿐이다.(More, 1964, 67, 93, 139)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토피아는 질서가 정연한 사회이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 유토피아의 이런 모습은 작중 인물 ‘히슬로다에우스’로 하여금 사회계급과 사유재산, 그리고 화폐의 폐지를 주장하게 만든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평등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동체의 정의와 행복,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파한다.(More, 1964, 52-5, 93) 그는 여기에서 덕스러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이 행해져야 되는지에 대해 매우 명확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왜 『유토피아』에 담긴 토머스 모어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관해 그렇게 긴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걸까?

모어의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것은 『유토피아』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유재산과 사회계급의 존재를 옹호하고 있는 이 책의 주요 해설자, 즉 ‘토마스 모루스’, 즉 ‘토머스 모어’의 목소리이다. 어떤 평자들은 작중 모어의 목소리보다 히슬로다에우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 예컨대 잭 헉스터는 사유재산과 계급의 폐지를 외치는 히슬로다에우스의 목소리가 모어의 진정한 의견을 대변하고 있으며, 작중 모어의 말은 그것을 강조하여 반복하고 재차 확인하려는 신중함의 발로라는 것이다.(Hexter, 1965, 52-6) 이에 반해 시어도어 메이너드 같은 사람들은 모어가 그의 다른 저작들, 특히 『위안의 대화(Dialogue of Comfort)』에서 실제로 기존의 경제 질서를 옹호하고 있으며, 또한 현실에서의 모어의 삶 자체가 히슬로다에우스의 목소리와 양립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Maynard, 1947, 82)

『유토피아』에는 사유재산과 사회계급에 대한 모어의 진정한 의견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문제 외에 또 하나의 해석상 문제가 있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펼쳐지는 사회상이 과연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 하는 문제이다. 아서 B. 퍼거슨은 『유토피아』는 당시 잉글랜드의 사회악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발견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당면한 목적에서 쓰인 책이라고 주장한다. 모어에게 있어서 유토피아의 사회는 먼 미래에 추구하여야 할 이상이 아니라 당장 추진해야 할 공동체였다는 것이다.(Ferguson, 1963, 28) 그러나 다수의 평자들은 모어의 현실적 감각을 중시하며 모아가 유폴

토피아의 사회 시스템을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을 부인한다. 그 점은 그가 ‘유토피아’의 시스템을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으로 생각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Ridley, 1983, 63, 71, 77)

잉글랜드 휴머니스트들은 그들이 인식하는 사회 문제와 치유책에 대한 생각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하나의 공통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개혁에 대한 희망을 온전히 기존의 지배층에 건다는 것이었다. 스타키나 모리슨 같은 사람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형평의 원칙을 주장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 역시 보수적인 휴머니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질서의 유지와 정통적인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라는 기본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한 태도는 그들의 저술에 잘 나타나 있다. 예컨대 모리슨은 ‘은총의 순례’ 반도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외쳤다. “신이 그를 왕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신은 그에게 복종하라는 법을 만드셨다. 그대들은 그 법을 여기면서 어떻게 그에게 복종할 수 있는가?”(Morison, 1984, 117)

잉글랜드 휴머니스트들은 대체로 기존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삼갔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공격이 사회적 무질서를 초래하고 기독교적 공동체의 통합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최악의 경우는 평민들이 기존의 권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에라스무스와 토머스 모어 등 보수적 휴머니스트들이 종교개혁을 반대했던 이유는 종교적 이단이 반드시 급격한 사회적 붕괴를 불러일으키고, 현존하는 정치적 사회적 관계의 구조를 완전히 흔들고 말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 때문이었다.(Fleisher, 1973, 139-141)

그러므로 휴머니스트들은 ‘위로부터의 개혁’을 원했다. 그것은 개혁된 군주, 개혁된 자문관들, 개혁된 정부 관리들에 의한 점진적 개혁이었다. 그들이 단 한 번도 평민들을 향해 이야기 하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이는 또한 왜 그들이 국왕을 위해 정책적 조언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그토록 열심이었는지를 설명해준다. 토머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실제로 추구해야 할 모범적 공동체의 모델로서 제시한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

면 그가 제시한 사회 개혁의 목표는 실로 혁명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혁신적인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 꼭 혁명적일 필요는 없었다. 『유토피아』에서 모어가 제시한 수단도 전혀 혁명적이지 않았다. ‘유토피아’에 새로운 사회제도가 성립되게 된 것은 그 섬을 점령한 유토푸스(Utopus) 왕이 그것을 그곳에 소개했기 때문이었다.(More, 1964, 60) 그가 『유토피아』를 쓴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던, 그가 책을 영어로 번역 출판하는 제의를 일인지하에 거절했던 이유는 유토피아 사회의 모습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하층 계급 사람들에게 노출되었을 때 그것이 불러올 파장을 염려했던 것이다. 그가 영어 성경이 일반인들에게 배포되는 것을 반대했던 이유와 같은 맥락이었다.

다른 휴머니스트들도 모어의 두려움을 공유했다. 그들이 전통적 군주정의 정통성에 대해 어떤 심각한 질문도 던지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특히 에라스무스는 군주정이야말로 사회적 질서와 조화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정체(政體)라고 생각했다. 왕이 권력을 무분별하게 행사한다면 그것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가져올 것이지만, 그 문제는 왕을 개혁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McConica, 1965, 30-3) 그러므로 왕이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의 선을 우선적으로 돌보도록 이끌 책무가 휴머니스트들에게 있었다. 엘리엇도 군주정을 최선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한 사람의 군주가 높은 덕성과 좋은 자질을 갖춘 자문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상 무제한적인 통치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러한 권력의 행사가 덕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는 있었다.(Lehmberg, 1960, 37) 오로지 스타키만이 세습적 군주정이 아닌 선거제 군주를 최선의 정체로 제시했으나, 그 또한 최소한 잉글랜드에서는 세습적 군주정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수밖에 없었다.(Elton, 1970, 167-70)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했던 문제는 정체가 아니라 그들의 개혁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치자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비교적 온건한 개혁 프로그램들은 그들이 바로 ‘개혁이 가능할 것 같은 통치 엘리트들(would-be-reformed ruling elites)’에 의존했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군주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좋은 일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모든 배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들의 자문을 온전하게 그리고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군주를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른바 ‘자문의 문제(problem of counsel)’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의 일에서 엄청난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회 문제에 대해 실제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악을 최소화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믿었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휴머니스트-자문관은 “일의 국면을 파악하고, 이것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조율하며, 자신의 역할을 촘촘하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보다 실용적인 철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More, 1964, 39, 49)

IV. 헨리 8세는 르네상스 군주인가?

에라스무스는 군주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그의 신민들을 완벽하고 정화된 기독교인의 생활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도덕적 덕성이 가장 높은 형식으로 발휘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군주는 자신의 삶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가장 완벽한 보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잉글랜드의 다른 휴머니스트들도 대체로 좋은 도덕 교육의 중요성, 특히 지배 엘리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 예컨대 통치자들에 대한 도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덕스러운 통치 리더십의 필요성을 설파한 엘리엇의 생각도 에라스무스와 결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Fox, 1986, 34-6)

모어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제임스 맥코니카는 잉글랜드의 휴머니즘은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운동이며, 그 핵심에는 에라스무스 휴머니즘의 본질적 이념, 즉 ‘질서정연한 세속사회’의 이상이 있다고 말하면서 모어의 『유토피아』를 관통하는 것도 이러한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한다.(McConica, 1965, 41-2) 켄틴 스키너 역시 『유토피아』는 덕성이 정치적 삶을 선도하는 핵심적 요소가 되어야 하고 선량한 질서와 조화의 유지가 덕스러운 공동체의 필

수적인 전제조건이라는 에라스무스 휴머니즘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믿는다.(Skinner, 1978, 235, 255) 헉스터 또한 『유토피아』야말로 에라스무스를 중심으로 하는 휴머니스트 공동체가 가장 좋아하던 주제를 다루면서 그 외연을 상당 부분 확장시킨 작업이라고 본다.(Hexter, 1965, 63-4, 115)

잉글랜드의 휴머니스트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보다 사회의 공동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국왕 또한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자신이 이익보다 신민들의 복지를 우선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국왕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음 소리와 한탄에도 불구하고 쾌락과 자기 탐닉의 삶을” 영위하려고 한다면, 그는 통치할 자격이 없다고 경고했다.(More, 1964, 46-7) 모어의 『유토피아』뿐 아니라 엘리엇의 『통치자』, 스타키의 『대화』, 그리고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 등은 모두 사적이익의 무분별한 추구라는 사회악에 대항하여 공동선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희망으로 삼았던 헨리 8세는 과연 휴머니즘 사상에 바탕을 둔 르네상스 군주였을까? 우리는 이 문제를 그의 생애에 나타난 국면에 따라 1) 교육, 2) 전쟁, 3) 종교개혁, 4) 의회와 개혁입법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개관하며 살펴보기로 한다.

1) 교육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헨리 8세는 왕자와 왕세자 시절 당대 일급의 휴머니스트 교사들로부터 라틴어 문법에서 수사학, 역사학, 문학 및 시학, 외국어 그리고 음악에 이르기까지 인문학 전 분야에 걸쳐 좋은 교육을 받았다. 에라스무스는 1506년 헨리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것을 읽어보고 “개념들과 표현들에 있어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의심이 잘못이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고 술회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그의 학문적 성취가 예외적으로 빨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헨리는 통치 초기 헨리 5세의 라틴어 전기를 영어로 번역했고, 마르틴 루터

가 등장한 이후 그를 논박하는 글을 써서 그를 고맙게 생각한 교황으로부터 ‘신앙의 수호자(Defender of the Faith)’라는 칭호를 받는 등 필력을 과시했다.

그의 배움에 대한 열의는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왕위에 오른 뒤 그는 모어를 자신의 사실로 데려가서 천문학, 지질학, 신학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으며, 가끔씩 옥상에 올라가서 별의 궤도와 우주의 움직임 등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Scarlsbrick, 1968, 19-20) 이 점에서 볼 때 일찍이 폴라드가 평가한 것처럼, 그는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영향 아래 교육 받은 첫 잉글랜드 군주”(Pollard, 1966, 16)임에는 틀림없었다.

2) 전쟁과 평화

앞에서 헨리 8세가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전쟁을 수행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헨리의 명예 추구가 꼭 전장을 무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세계의 주목을 끄는 이벤트를 통해서 ‘왕의 왕다움’, 즉 차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적무대가 주어진다면 그 또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다. 그 중에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매개로 한 이벤트들도 있었다. 이를테면, 1518년의 런던조약과 관련하여 헨리가 보여준 ‘평화의 중재자’ 역할은 헨리의 명예를 높여주는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 전쟁과 평화를 선택하는 외교적 정책 결정은 오롯이 군주에게 주어진 특권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평화 또한 군주의 명예를 고양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 런던조약은 교황은 물론, 신성로마제국의 막시밀리안 황제, 에스파냐 왕 카를로스 1세, 프랑스 왕 프랑수아 1세를 비롯한 유럽 20여 개국의 군주가 참여한 국제조약이었다. 비록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이 조약 체결에 따라 투르네를 프랑스에 반환해야 했지만, 런던 조약의 성가는 헨리와 잉글랜드를 잠시나마 유럽의 역사적 무대에 우뚝 서게 만든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평화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종전에는 오직 교황에게만 주어졌던 역할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명예로운 책무였던 것이다.(James, 1988, 312; 허구생, 2015, 18-9, 32)

그런데 헨리가 마음먹고 추진한 일 중에 자신의 명예를 겨냥한 평화 의식의 결정적 사건은 따로 있었다. 바로 ‘금란의 들판(the Field of Cloth of Gold)’이었다. 1520년 6월 7일에서 24일까지 17일간에 걸쳐 대륙에 남은 유일한 잉글랜드령 칼레 근처에서 잉글랜드 왕 헨리 8세와 프랑스 왕 프랑수아 1세 사이에 벌어진 평화 의식이었다. 긴느에 세워진 잉글랜드의 임시궁전은 우선 규모가 남달랐다. 특히 대연회장은 길이 38미터, 너비 약 13미터, 높이가 9미터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잉글랜드 본토에 있는 그 어떤 궁전의 방보다도 큰 것이었다. 목격자 중 한 사람은 그 장관에 감동한 나머지 “매너와 예절의 극치를 느꼈다.”라고 말하면서 헨리가 장차 “그 어느 군주보다도 위대한 왕이 될 것”이라며 칭송했다 한다. 아르드르에 있던 프랑스의 임시 궁전은 중심 건물의 높이가 약 36미터에 달했다는 기록을 볼 때, 그 규모가 잉글랜드 못지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 측의 임시 궁전과 텐트는 모두 금실과 금분으로 치장되었으며, 이 때문에 이 평화 의식은 ‘금란의 들판’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 양국에 합의에 의해 정해진 수행원은 각기 5천명, 동원된 말도 각각 5천 마리에 달했다.(허구생, 2015, 32-5)

‘금란의 들판’은 비록 전쟁이 아니었지만 군사적 성격의 무대에서 펼쳐진, 그리고 전쟁의 요소를 두루 갖춘 평화 의식이었다. 마상 시합, 레슬링 등 다양한 스포츠 경연을 통해 중세 기사들의 세계를 재현한 군사적 무대였으며, 건축, 미술, 음악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 최고의 재사들을 총동원하여 문화적 기량을 다툰 행사이기도 했다. 행사에 동원된 엄청난 인원과 물자, 특히 그들에 의해 표현된 장엄미와 화려함의 극치는 당대인들로부터 세계의 ‘여덟 번째 경이’라고 불릴 만도 했다. 이는 왕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따라서 신민들과의 차별성을 시각적으로 재확인하는 일이기도 했다.(허구생, 2015, 35-7)

우리는 이러한 헨리의 평화 공세를 휴머니즘의 영향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 일찍이 에라스무스는 휴머니즘을 유럽 전역에 걸친 보편적 평화운동으로 승화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믿었고, 마치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유럽 보편의 기독교적 공동체가 이미 형성되고

있기라도 하듯이 자유롭게 유럽을 여행하고 다녔다.(브로노프스키, 매즐리슈, 2001, 409) 에라스무스와 잉글랜드 휴머니스트들이 추구했던 ‘질서와 조화’라는 이상은 확실히 전쟁보다는 평화 안에서 추구하는 것이 쉬운 목표였으며, 더구나 그것이 유럽 보편의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헨리와 프랑수아 사이에 다짐했던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고, 헨리는 프랑스를 상대로 또 다시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 국가의 자원이 엄청나게 낭비되었다. 물론 거기에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보다 큰 맥락에서 보면 공동선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을 앞세운 경우가 아닐까? 당대의 프로테스탄트 지식인 헨리 브링클로우가 지적했듯이, 수도원 해체로 인한 수익은 국왕의 전쟁이 아닌 빈민 구제에 사용하는 것이(허구생, 2015, 241-261) 공동선을 우선하는 휴머니즘의 정신에 더 맞는 것이었다.

3) 종교개혁

기독교적 미덕이라는 주제는 페트라르카에서 에라스무스까지 르네상스 휴머니즘을 관통하는 가치였다. 다만, 에라스무스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하는 중세 교회의 금욕적인 덕목이 인간의 본질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며, 더구나 그것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흐른 나머지 휴머니스트들이 추구하는 완벽하고 보편적인 인간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비판했다. 초기 기독교가 가졌던 간결한 진리와 덕목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 논제를 게시한 이후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다. 이른바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다. 가톨릭교회의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 “에라스무스가 낳은 알을 루터와 츠빙글리가 부화시킨 것”이라며 에라스무스를 비난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가 원했던 것은 루터나 츠빙글리가 한 일이 아니었다. 종교적 폐습과 부패를 비판하고 형식에 찌든 스콜라 신학자들을 비판했지만, 로마 교황이 이끄는 가톨릭교회 자체를 부정하려는 뜻은 없었다.

루터는 『격언집』, 『우신예찬』 등 에라스무스의 저술들을 연구했으며, 특히 그가 편집한 그리스어판 신약성경으로부터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가 95개 논제를 게시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에라스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휴머니스트들은 루터를 지지했고, 그가 로마 교회로부터 주장을 철회하라는 요청을 받고 그것을 거부했을 때조차도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이후 루터의 과격한 언동과 특히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루터의 태도를 인정한 후부터는 그에 대한 지지를 유보했으며, 다만 양 진영이 극단에 이르지 않도록 중재하는 입장에 서려고 노력할 뿐이었다.(브로노프스키, 매즐리슈, 2001, 400-9) 토머스 모어는 이러한 에라스무스의 중립적 태도에 몹시 실망했으며, 자신은 이단 종식을 위해 한 몸을 다 바치기로 결심했다. 모어가 1529년 대법관직을 수락한 이유는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이었다. 이제 휴머니스트 모어는 더 이상 없었다. 그가 2년 7개월 동안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무려 여섯 명이 이단 혐의로 화형에 처해졌다. 첼시에 있는 그의 집 정원에서 이단 혐의자들이 나무에 몸이 묶인 채 매질을 당했다. 감옥에서는 이단 혐의자들이 모어가 지켜보는 가운데 고문을 당하고 몸이 불구가 되었다는 증언도 있다.(허구생, 2015, 156-7)

1530년대 초반 왕의 이혼 문제로 촉발된 사태가 결국은 로마 교회와의 결별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자, 그때까지 나름대로 공감대를 가지고 유지되고 있었던 잉글랜드 휴머니스트 공동체는 갑작스런 와해를 맞이하기 시작했다. 잉글랜드의 종교 개혁은 분명히 휴머니스트들의 프로그램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것은 국민국가의 출현과 르네상스 문화의 확산이라는 긍정적인 부수효과를 가져왔으며,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다.

헨리가 이니셔티브를 행사했건(Pollard, 1966, 139-156, 186-7, 202-7), 아니면, 토머스 크롬웰의 작품이건(Elton, 1962, 67-80), 국왕의 이혼, 국왕에 대한 성직자들의 복종 요구, 로마 교회와의 단절, 국왕의 잉글랜드 교회 수장권(首長權) 확립, 수도원 해체, 중도노선에 입각한 독립적 교리 채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잉글랜드는 외세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주권국가가 되었으며, 이는 헨리가 이전에 막연하게 주장해오던 최고 주권(supremacy)의 이

상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헨리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은 영어 문학의 급속한 확산을 가져 왔으며, 이는 엘리자베스 시대에 찬란하게 꽃피게 될 셰익스피어와 그의 동료 문인들의 문학적 자양분이 되었다. 그 발화점은 1539년 발행된 역사상 최초의 영어판 성경, 즉 『위대한 성경the Great Bible』이었다. 토머스 크롬웰과 더불어 이 성경의 산파를 맡았던 캔터베리 대주교 토머스 크랜머는 『위대한 성경』의 제2판 서문에서, 이 성서가 “모든 종류의 사람들, 남자, 여자, 젊은이, 노인, 부자, 가난한 성직자, 속인, 귀족, 귀부인, 관리, 소작인, 천민, 처녀, 아내, 과부, 법률가, 상인 등 어떤 신분과 상태에 관련 없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사마, 2022, 395-6) 비록 1543년, 오독을 막는다는 이유로 여자와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영어 성경의 독자층에서 배제했지만, 영어 성경은 자연스럽게 국민들 사이로 퍼져나갔고, 그들의 맞춤법 사전으로, 또한 표현의 보고(寶庫)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헨리 8세의 가장 큰 공헌은 잉글랜드의 르네상스 확산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4) 의회와 개혁입법

국왕, 귀족, 평민의 세 계층으로 구성된 튜더 시대 잉글랜드 의회는 동 시대 프랑스와 에스파냐 등 대부분 대륙 국가들의 신분제 의회가 쇠퇴 과정을 밟아간 것과는 달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의회의 소집 주기가 단축되고 회기가 연장되는 등 규칙성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의회입법이 양적, 질적으로 대폭 확대되었던 것이다. 특히 의회가 다루는 의제의 정치적, 사회적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다.(허구생, 2015, 131)

잉글랜드 의회가 이 같은 예외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 데에는 종교개혁이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었다. 앞에서 말한 국왕의 이혼, 로마 교회와의 단절, 국왕의 잉글랜드 교회 수장권 확립, 수도원의 종교재산 해체 등 모든 절차가 의회의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1529년에 소집되어 1536년까지 회기가

지속되었던 종교개혁의회(the Reformation Parliament)가 그와 관련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런데 이 시기 의회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조치는 종교개혁에 관한 것뿐이 아니었다. 종교개혁의회는 예외적으로 많은 숫자의 경제·사회 관련 입법을 추진했으며, 특히 마지막 회기인 1536년의 경우에는 이들 경제·사회 관련 법안들이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당시 의회의 가장 큰 당면과제였던 종교 관련 입법과 맞먹을 정도였다. 양원을 통과하여 법률로 확정된 경제·사회 입법만 하더라도, 인클로저의 제한, 토지 취득과 양(羊)의 사육에 대한 양적 제한, 육류 및 낙농제품의 가격 규제, 그리고 근대적 사회정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빈민법이 포함되어 있었다.(Lehmberg, 1970, 230-5)

특히 1536년 빈민법 입법 과정에서 주목 받아야 할 것은 의회를 통과한 실제 법률보다도 당초 의회에 제출되었던 원안이다. 이 원안에는 나중에 엘리자베스 1세 치하 말기(1601년)에 완성될 튜더 빈민법의 혁명적인 원칙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공고용 조항이다. 여기에는 일을 하려는 의사가 있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이른바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경제 인식이 깔려 있었다. 완전고용시장을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였던 중세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다. 또한 이 조항은 그들 비자발적 실업자들을 항구, 도로, 수로 등의 건설과 정비 등의 공공사업에 투입하고 적정한 임금은 물론 의료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그뿐 아니라, 이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자발적 회사에 더하여, 소유 재산의 크기에 따라 누진적 소득세를 강제 징수하는 것을 방안으로 하고 있다. 이른바 ‘강제적 자산’의 시작이었다. 또한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impotent poor)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구제 원칙을 제시했다.(허구생, 2015, 192-7)

빈민법을 비롯하여 의회입법을 통한 사회개혁 프로그램에는 토머스 스타키와 리처드 모리스 등의 휴머니스트들이 제시한 ‘정책 사상(policy thought)’의 영향이 있었다. 개인의 내면적 덕성을 중시하던 도덕론적 휴머니스트들이 종교개혁과 관련하여 영향력이 급격하게 사라지자, 그들의 빈자리를 채운 것이 이들 실용론적 휴머니스트들이었는데, 이들은 법과 제도를 사회 개혁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법의 상대적인 측면

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혁들이 제프리 엘턴이 주장하는 대로 대부분 토머스 크롬웰의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왕의 신뢰를 받지 못하거나 왕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것이 추진될 수 없었던 역사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그 공적의 부분적인 몫은 헨리 8세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헨리 8세는 과연 르네상스 휴머니즘을 포용하고 활용한 군주였는가? 절반은 그렇고 절반은 그렇지 않다. 그가 휴머니즘에 입각한 교육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가 배운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태생부터 중세 기사도의 덕목을 중요시했으며, 자신의 ‘명예’를 목숨과도 바꿀 만큼 소중하게 아꼈다. 부왕으로부터 왕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권력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웠고, 고의적으로 파당을 조장하고 그들 간의 권력 투쟁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조종하며 활용하는 통치술도 배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휴머니즘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들의 의견을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 만약,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휴머니즘이라는 정책사상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휴머니즘은 존재했지만 국왕인 그가 인문교육에서 비롯된 현명한 통치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가 실제 역사에서 이룬 것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참고문헌〉

- 브로노프스키, J., 브루스 매즐리슈, 2001, 「에라스무스, 시대를 초월한 지식인」, 윌리엄 L. 랭어 엮음, 박상익 옮김, 『호메로스에서 돈키호테까지』, 385-412.
- 샤마, 사이먼, 2022, 『사이먼 샤마의 영국사』, 허구생 옮김, 한울.
- 허구생, 2015, 『근대 초기의 영국』, 한울.
- Bernard, George W. 2011, “The Dissolution of the Monasteries”, *History*, 96, 390-409.
- Bowle, John, 1990, *Henry VIII, A Study of Power in Action*, New York: Dorset Press.
- Elton, G. R., 1962, *Henry VIII: An Essay in Revision*, London.
- Elton, G. R., 1970, “Reform by Statute: Thomas Starkey’s Dialogue and Thomas Cromwell’s Policy”, *Proceedings of the British Academy*.
- Elyot, Thomas, 1962, *The Book named The Governor*, edited with introduction by S. E. Lehmborg, Everyman’s Library.
- Erasmus, Desiderius, 1997, *The Education of a Christian Prince*, Cambridge.
- Ferguson, A. B., 1963, “The Tudor Commonweal and the Sense of the Change”, *The Journal of British Studies*, vol.3, No.1, 11-35.
- Fleisher, Martin F., 1973, *Radical Reform and Political Persuasion in the Life and Writings of Thomas More*. Geneva.
- Fox, Alistair, 1986, “English Humanism and Body Politic”, in A. Fox and J. A. Guy eds., *Reassessing the Henrician Age*, Oxford and New York.
- Foxe, John, 1563, *Actes and Monuments of These Latter and Perillous Dayes*, London.
- Hexter, J. H., 1965, *More’s Utopia*, Harper Torchbooks.
- James, Mervyn, 1988, *Society, Politics, and Culture: Studies in Early Modern England*, Cambridge.
- Lehmborg, S. E., 1960, *Sir Thomas Elyot, a Tudor Humanist*, Austin.
- Lehmborg, S. E., 1970, *The Reformation Parliament, 1529-1536*, Cambridge.
- Mayer, T. F., 1989, *Thomas Starkey and the Common Weal*, Cambridge.
- Maynard, T., 1947, *Humanist as Hero: the Life of Sir Thomas More*, New York.

- McConica, James K., 1965, *English Humanists and Reformation Politics*, Oxford.
- More, Thomas, 1964, *Utopia*, ed. by Edward Surtz, Yale University Press.
- Morison, Richard, 1984, *A Remedy for Sediton, printed in Humanist Scholarship and Public Order*, edited with introduction by D. S. Berkowitz, Washington, London and Toronto.
- Nauert, Charles, 2006, “Rethinking ‘Christian Humanism’”, ed. by Angelo Mazzocco, *Interpretations of Renaissance Humanism*, Brill, 155-180.
- Pollard, A. F., 1966, *Henry VIII*, with introduction by A. G. Dickens, Harper Torchbooks.
- Ridley, Jasper, 1983, *Statesman and Saint*, New York.
- Scarlsbrick, J. J., 1968, *Henry VIII*,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kinner, Quentin, 1978,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Cambridge.

Henry VIII and Renaissance Humanism in England

Hur, Goosaing

(former Director of Institute of International Culture and Education,
Sogang University)

Henry VIII of England was the first monarch in English history to grow up and rule a country under the influence of Renaissance humanism. He was taught Latin, rhetoric, history, and music by the first-rate humanist teachers of his time, and learned several foreign languages, including French and Italian. He ascended the throne in 1509 at the age of 19. Fortunately for him, he had a number of humanist intellectuals around him, who were always ready to provide the king with their wisdom from the new learning. England's humanists were thinking of 'social reform from above' and, therefore, the new king became their hope.

Then, was Henry VIII a Renaissance monarch who widely accepted humanism? The answer is not so easy. As the final decision maker of foreign policy, he alternated between war and peace policies. Humanists had hopes of transforming Europe into a virtuous Christian community, so wars were not their alternative. In particular, the war he raised at the end of his reign not only did not have a great justification, but also remained as an event meaninglessly wasting precious national resources. His desire to secure an heir and secure the country's future led to his decision to divorce his first queen, Catherine of Aragon. The king's divorce issue eventually led to the Reformation in England. The Reformation itself disappointed most humanists who tried to

create a virtuous Christian community through church ‘reform’, not ‘the Reformation’, and made them leave the king.

However, the Reformation had several unexpected positive impacts on English history. And in that background, unlike the first-generation humanists who valued the cultivation of inner virtue, there was a next-generation humanist group with pragmatic thinking. They had the idea of reforming society through laws and institutions. As all procedures of the Reformation, such as the king's divorce, the dissolution of monasteries, and the acceptance of moderate ‘via media’ doctrines, were handled through parliamentary legislation, the regularity of parliament was strengthened, such as shortening the convocation cycle of the parliament and extending its sessions. In addition, the political and social importance of the agenda addressed by the parliament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he English parliament grew to be the most pivotal institution of the state, and the concept of supreme sovereignty, ‘the king-in-parliament’, was born. And the English version of the Bible, first published in 1539, became a source of nourishment for English Renaissance literature to come in the reign of Elizabeth I.

Some have argued that it was not the king who was responsible for these achievements, but his subjects, including Thomas Wolsey and Thomas Cromwell. However, given the fact that Henry VIII was the one who employed them, and that their policies were accepted only with Henry's will and consent, it is right to give a half of the credit to Henry.

Keyword ● Henry VIII, renaissance humanism, liberal arts, Erasmus, Thomas More, the English Reformation, parliamentary legislation, war and peace, the English Bible

|| 논문투고일 : 2022. 12. 22. || 심사완료일 : 2022. 12. 23. || 게재확정일 : 2022. 12. 23.